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4. 11. 2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18~11/22)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의한 엔화 강세에 강달러 압력이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증공업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주요 경제지표 발표 부재 속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된 영향으로 추가 하락
- 중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미사일 공격에 위험회피 심리 유입되었으나 확진 자제 분위기에 영향 제한되며 보합세
- 후반, 우-러 전쟁 확산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보우먼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 등 달러 강세 재료에 상승. 이어 주 후반, 미 고용, 주택 관련 지표 호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점증에 강달러 지속되면서 1,400원대 초반으로 상승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96.0	1,402.5	1,387.8	1,401.8	+5.8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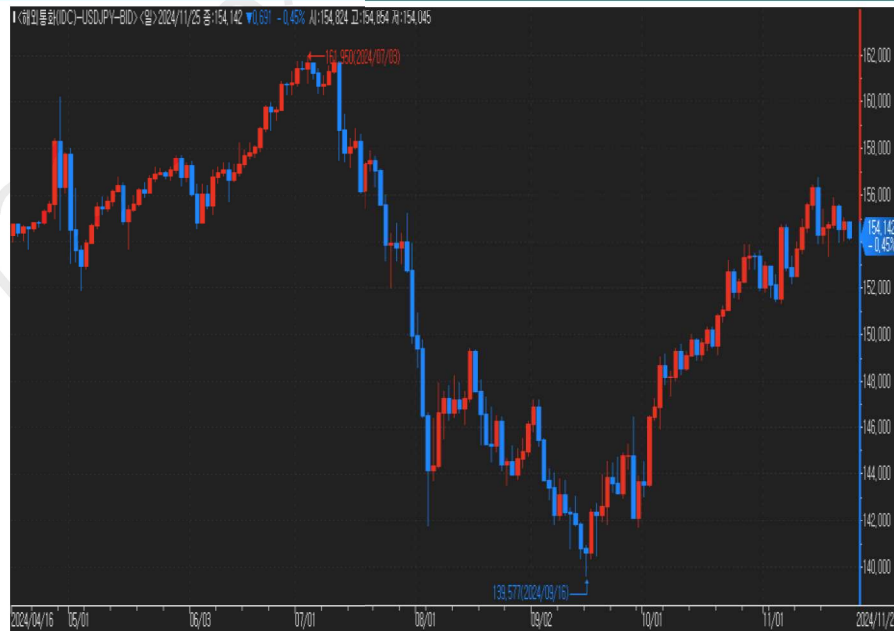
- 주요 경제권역 대비한 미국경제 호조 흐름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특히, 유로존 PMI지표가 10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가운데, 유로화는 전쟁관련 지정학 이슈와 겨울 한파전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두 악재 속에 약세를 띤 점이 상대적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주중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우세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요인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는 점도 환율 상승 압력 요인으로 판단
- 다만, 고점 인식, 월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이 상단 제한할 것으로 보임

예상거래범위

1,395원 ~ 1,410원



엔·유로화 동향 (11/18~11/22)



유로화 동향

- 주초, 글로벌 분절화 심화 시 금리가 더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음을 시사한 분데스뱅크 총재의 발언에 유로화 반등하며 출발. 이어 유로존 9월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강보합세
- 중반, ECB 보고서에서 미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유로존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성장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약세 전환하는 양상 시현
- 후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며 위험회피 심리 유입된 가운데 ECB 위원들의 도비시한 발언이 더해진 영향 등으로 약세 지속하며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우에다 BOJ 총재의 연설에서 12월 금리인하 시그널이 부재한 데 따른 실망감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러-우 갈등 고조에 안전자산 선호심리 유입되며 강세 나타났으나 확전에 자제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되돌림 시현
- 중반,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미일 금리차 확대 우려를 자극한 측면이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
- 후반,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 강세 흐름 전환 나타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528	1.0609	1.0333	1.0475	-0.0117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4.3	155.9	152.6	154.1	0.45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18~11/2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국채금리가 지역 연은 총재 도비시 발언에 하락 양상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미 국채금리의 연이은 하락 추세에 연동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세 지속
- 중반 들어, 트럼프트레이드 영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특이 이슈 부재 속 3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소폭 하락 흐름 이어간 국면
- 후반 들어, 중부유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영국 무기를 통한 러시아 본토 공습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가운데 차주 금동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둘기 기대가 커진 측면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후, 주 후반, 추경 가능성 부각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하는 양상을 나타냈지만, 이어진 11월 금동위에서의 내수부진 등에 따른 '비둘기' 성향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최종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와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달러와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글로벌 증시 소폭 상승 영향 등을 반영하며 강세 흐름 지속되었으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으로 그 영향은 다소 제한
- 중반 들어,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코스피는 제한적 상승 흐름 이어간 국면
- 후반 들어, 뉴욕증시의 엔비디아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높아진 시장 기대로 뉴욕증시가 하락하며 코스피도 약보합 흐름 전환 후, 주 후반 엔비디아 호실적 영향의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순환매가 세계 증시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주요 반도체 종목 상승이 업종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으며 2,500선 위에서 마감